



# 2006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 결과보고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지난 2006년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자갈란트 지역에서 해외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해외의료지원사업의 준비과정 및 경과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되짚어 보고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해외의료지원사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윤 학 식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장

## 1. 머리글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이하 '협회'라 칭함)는 2006년 9월 4일부터 12일까지(9일간) 일정으로 몽골 자갈란트 면에서 1년여 동안 준비해 온 해외의료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협회가 1989년 해외의료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십수 년간 거의 매년 김중호 신부(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외 소수정예 요원이 남미, 아프리카, 몽골 등지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사업을 펼쳐 왔다. 그러나 2006년 추진한 사업은 과거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사업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사업의 참가자 대부분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기획과 준비, 조화로운 사업내용 구성 그리고 참가자의 협력과, 단원이 사업 종료 후 소속과 직분을 넘어서 의미 있는 모임을 지속하는 인화된 모습을 보이는 등 여러 면에서 향후 협회의 사업전개 방향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되고 있는 듯하다.

해외의료지원사업이 협회의 핵심 사업이 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제1기(1989~2005) 사업과 '2006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을 분석하고 협회의 향후 사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사업준비

### ① 사업추진 배경

언급한 바와 같이 1989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해외의료지원사업은 17년이 경과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남미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프리카 케냐, 중앙아프리카, 몽골 등지를 순회하며 60여 명의 의료진이 참가(매년 4~5명), 현지인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속된 사업과정에서 자율적인 의지로 동참하는 봉사자가 매년 줄어들어 체계적인 인적 자원의 육성이 담보상

태에 머물러 있었고, 사업명분과 자원의 문제가 악화되어 개선과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업시도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협회는 2000년부터 4년 간 해외의료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모금되는 성금을 적립하여 북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정착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의료지원을 제한 없이 받아들일 만큼의 제도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2004년 협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해외의료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북한을 특정화하던 기존의 지원 대상 규정을 북한 외에 제3세계 어느 국가도 가능한 사업규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2005년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창립총회에서는 해외의료지원사업을 협회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여 조직적인 문화행사로 추진하는 진일보한 사업안이 가결되어 그간 10회 이상 추진해온 협회의 해외의료지원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협회의 뜻있는 인사를 공모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기획된 의료봉사와 문화행사, 복음화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한 활성화된 사업방안이 명분을 얻게 되어 '2006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1〉 제기 해외의료사업 현황

차수	연도	봉사일수	지역	봉사참가자	진료인원
1	1989	22	에과도르	김중호 신부 외 3인	1,045
2	1990	13		김중호 신부 외 6인	1,665
3	1992	22	케 나	박은숙·최환석 교수	462
4	1993	22		김중호 신부 외 2인	1,019
5	1994	29		신호철·김경수 교수	1,420
6	1995	28		김종완·김경수 교수	245
7	1997	15	몽 골	김중호 신부 외 5인	2,145
8	1998	15		김중호 신부 외 9인	2,350
9	1999	15		김중호 신부 외 6인	2,741
10	2004	15	콜롬비아	김중호 신부 외 3인	736
11	2005	15			539
합계			4개국 4지역	연인원 48명	14,367

## ②사업 준비일정

사업안 의결에 따른 '2006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을 위해 협회가 추진한 준비일정은 〈표2〉와 같다.

사업의 검토와 조직 구성, 기획안 수립 등의 업무과정을 감안하면 사업 준비기간만 1년 이상이 필요하다. 현지의 여건을 감안한 치밀한 준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표2〉 사업추진 준비일정

순번	일정	내용
1	2005.10	해외의료지원사업 분과위원회 구성
2	2005.10	협회 내 해외의료지원사업 분과위원회 구성 후, 김중호 신부를 초대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사업 준비를 위한 정기모임을 통해 회의를 진행함
3	2005~2006.04	6차에 걸친 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진행, 현)김형욱 신임 단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를 인선하고 '2006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안'을 의결함
4	2006.03	몽골지역 의료지원을 위해 김중호 신부 및 협회 사무국장이 정부인사 상담, 현장답사(정부인사 동반)를 통해 2006 해외의료지원사업 사전답사를 완료함
5	2006.04	사업안 의결 : 회원 및 단원의 상정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사업안으로 채택함
6	2006.04	사업단 편제 : 해외의료지원사업단 편제 참조
7	2006.04	해외의료지원단 공모, 회원병원 및 봉사단체로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신청한 인원은 78명
8	2006.05	몽골파견 인원 17명 선발, 단원교육(1차)
9	2006.05	업무분장별 진료분과위, 약사분과위, 간호분과위, 문화분과위, 총무분과위 등 5개 분과위로 편제를 구성, 세부적 업무분장 및 정기적 모임을 통해 준비를 진행함
10	2006.05	약품, 구제품, 주방기구, 침구, 문화기구, 음식, 소모품 등 사업물품 준비완료 및 D-20일 화물운송 일정에 맞춰 140박스 1.5톤 화물을 현지로 선 발송
11	2006.08	단원 출정식 및 준비사항 최종 점검 완료, 단원교육(2차)
12	2006.09	9월 2일 선발대 파견, 9월 4일 본진 출발 및 사업 진행



### ③ 편제

사업안 결정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공모과정을 통해 모집된 지원자 구성은 <표3>과 같다. 협회는 문호를 개방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모임과 교육을 통해 봉사자의 필수 덕목인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을 지속화하고 또한 각 부문별 지원 단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축적된 인력자원을 풀제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업무의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표3> 해외의료지원단 조직표

	단장	김형옥 교수			
	부단장	김영훈 교수			
구분	진료분과장	약사분과장	간호분과장	문화분과장	총무/간사
정	한치동 교수	원사덕 교수	유인자 수녀	이문환 신부	사무국장
부	김범수 교수	황보신이 수녀	-	-	-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업무</li> <li>전문의 편성</li> <li>약품편성</li> <li>기타사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품준비/구매</li> <li>약품조제</li> <li>기타사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호업무</li> <li>진료사업 협조</li> <li>문화/총무 협조</li> <li>주민교육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교</li> <li>문화행사</li> <li>영화 상영</li> <li>교육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진행</li> <li>생활</li> <li>취재 등</li> </ul>
공모단원	허재균 성비오로 (소아과)	이상영 의정부성모 이정선 강남성모	김옥희 <sup>○</sup> 의정부성모 김소영 정순옥 황형숙 <sup>○</sup>	김영모 성모 2명	장영식 메리놀 박승미 강남성모 원창덕 성가병원 김은하 강남성모
	박대환 대구가톨릭 (성형)	이진희 강남성모 곡순애 가약사회	조현숙 성빈센트 이지연 성모 권명희 <sup>○</sup>		5명
	한치동 대구가톨릭 (산부인과)	이지은 강남성모	최혜란 강남성모 이재정 허이순 임덕순 서옥임 김주연 최정은 정진희 최원진 이경란 이수경 신미진 강남성모 윤선혜 유선희 이선희 양선경		
	김우택 대구가톨릭 (소아과)				
	최은진 대구가톨릭 (소아과)	권중훈 가림한의원 외5명(한의원)			
	김태열 대구가톨릭 (전공3)	김포하나성심의원 (원장)			
	박성환 대구가톨릭 (외과)	퇴임의사 2 전계윤춘천방사선과			
	최환식 성모병원 (가정의)				
	김은철 강남성모 (안과)				
	황선출 메리놀병원 (신경과)				
몽골 의사 1명					
인원	25명		24명		13명
전체	72명				

### ④ 참가단원

공모에 의해 선정된 단원들은 단장 김형옥 교수를 포함한 17명의 구성원으로 단원의 면면은 <표4>와 같이 구성되었다. 성직자 1명, 전문의 6명, 약사 3명(수녀 1명), 간호사 3명(수녀 1명), 행정 2명, 취재 1명, 봉사자 1명 등으로 구성되고 현지인 통역 8명, 기사 2명, 요리 3명이 지원업무를 수행, 총 36명이 사업에 임했다.

<표4> '2006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 참가단원

단장 김형옥 교수 강남성모 피부과

김영훈 교수 의정부성모 소아과

한치동 교수 대구가톨릭 산부인과

박성환 교수 대구가톨릭 외과

최환석 교수 성모 가정의학과

김은철 교수 강남성모 안과

이문환 신부 의정부성모 원목실

윤학식 사무국장 가톨릭의료협회

원사덕 교수 한국가톨릭약사회

황보신이 수녀 강남성모 약제팀장

유인자 수녀 CMC가정간호센터

김영모 팀장 성모 정보지원팀

최혜란 간호사 강남성모 약제팀

이지은 약사 강남성모 약제팀

조현숙 간호사 성빈센트 중환자실

육희수 여자성당지원 봉사자

서영호 기자 평화신문·평화방송

2006 몽골 해외지원사업 참가단원

### ⑤ 준비물 현황

예상진료 인원이 설정되면 곧이어 착수해야 하는 업무는 사용물품에 대한 준비이다. 단기간의 연수지만 풍토와 기후가 완전히 다른 타국의 오지에서의 숙식, 봉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물품은 파견 인원수와는 무관하게 종류와 수량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약품과 식품은 세관을 통과하는데 중량과 품목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고 여차하면 압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우리 사업단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품목을 화물로 발송하는 방안을 택했다. 준비물은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사업 준비물 현황

품 목	수 량	비고(분량)
의약품	- 2,500명 진료분 약품 준비(품목 수백 종) - 금액환산 3,500만원 상당 - 구매 : 420만원 상당액 - 잔여분(3,000만원 상당액) : 협찬 접수	46박스 (중형)
의료소모품	- 2,500명 진료분 소모품 준비 - 금액환산 600만원 상당액 - 구매 : 460만원 상당액 - 잔여분(160만원) : 협찬 접수	16박스 (소형)
침구류	- 이불/커버/베개 3조 1세트 : 25개 구매 - 구입금액 : 675,000원	4박스(대형)
주방기구	- 밥솥 외 품목(65만원)	5박스(대형)
식품	- 쌀 외 음식 및 음식재료(140만원)	9박스(소형)
문화기구	- 현지 학생들을 위한 문화기구/용품	13박스(중형)
구제품(1)	- 화장품(소형)..... 600 - 화장품(대형) ..... 20 - 볼펜(종류별) ..... 1,500 - 치약 ..... 230 - 비누 ..... 440 - 샴푸 ..... 150 - 칫솔 ..... 250 - 사탕..... 1,600 합계 : 4,790세트 (의류 포함시 4,990세트)	16박스 (중/소형)
구제품(2)	- 의류(200점)	26박스(소형)
기타품목	- 문구, 진행용품, 행정용품 등	5박스(소형)
합 계	중량 : 2.5톤 개인짐 포함시 3톤 이상	140박스 (대/중/소)

### ⑥ 출정식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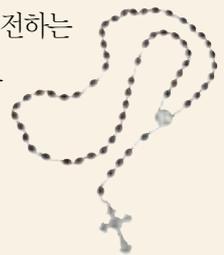
2006년 8월 30일 의과학연구원 강당 로비에서 '2006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단원의 결속을 다지고 협회 임원의 격려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사는 시작기도-격려사(최영식 회장 신부)-단장인사(김형옥 단장)-사업보고-선서낭독-단원소개-마침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협회 임원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 ● 격려사 요약(최영식 회장 신부)

한국전쟁 이후 절대적 빈곤기에 미국이 한국을 위해 지원한 의료사업 및 구제품 규모는 현재의 환율가치로 환산하더라도 매우 큰 규모였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현재 국가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인 우리나라는 발전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절대적 빈곤에 처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는 전 세계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 우리 협회가 전달할 수 있는 힘은 비록 제한되어 있지만 한국 가톨릭의료협회 출범 후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2006 몽골 해외의료지원 사업'에 단원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 ● 단장인사 요약(김형옥 교수)

가톨릭의료협회 이념실천사업의 핵심영역인 '몽골 의료지원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협회 회장님 이하 임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몽골 의료지원사업의 준비 현황 및 단원 소개, 추진과제 등을 보고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사도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주는 자의 오만을 버리고 겸양지덕의 자세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각오했다.



≡ 선 서 ≡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우리의 사명인 구원 사업 실천과 제3세계에 대한 인류애 실천 및 우호 선린교류, 가톨릭 의료의 선양과 복음화 실천을 목적으로 한 해외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담은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자발적 의지로 참여한 단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오는 2006년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는 몽골 해외의료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단원의 결의를 다지고자 출정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一.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로서 복음화 사업에 앞장선다.
  - 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내몸과 같이 보살피고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一. 우리는 봉사기간 동안 겸손의 미덕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고 우리가 떠나온 후에도 우리를 기억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진실되게 행동한다.
  - 一.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며 그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인류애 실천과 우호 선린교류를 위해 노력한다.
  - 一. 우리는 모두가 가톨릭의료인이다. 이념을 실천하고 단원들 간에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국가의 의료사업을 선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선서대표 -  
(발표는 최혜란 간호사의 선창으로 진행되었다.)

### 3. 사업결과보고

#### ①일 정

〈표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발대가 조기 도착하여 사전준비를 시작으로 전단원은 4일간의 의료지원 사업 및 문화행사의 진행, 의료기관 방문, 매일미사, 문화체험 등 숨가쁜 격무 중에도 보람과 행복감을 만끽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높은 업적을 이룩했다.

〈표6〉 사업진행 일정

일자	프로그램
9.02(토)	- 18:00 선발대 5명 CMC 집합(통역자 슈령 포함) - 20:00 인천공항 출발(예정) - 23:15 선발대 몽골 도착(예정)이었으나 기상이변으로 출발지연
9.03(일)	- 02:30 인천공항 출발(8시간 출발지연) - 05:40 울란바토르 도착 - 몽골 울란바토르 수녀원 방문-사업추진 일정협의/협조요청
9.04(월)	- 12:00 본진 CMC 집합(사전 준비완료) - 18:45 인천공항 출발(여행사 셔틀버스 이용) - 23:15 몽골 도착(13명) 울란바토르 비양골 호텔 1박 몽골공항 선발대/이준화 신부 교구청비서 영접 - 선발대 화물 현지이송, 준비물 준비, 보건소/숙소 점검, 통역 점검 등(숙소인원 : 35명)
9.05(화)	- 08:00~11:00 자갈란트(현지) 이동(승합차 2대, 트럭 1대) - 11:00~16:00 현지 의료진 미팅/중식(도시락) 및 진료준비완료 - 16:00~21:00 숙소배정 이불배정 짐정리, 업무회의, 준비
9.06(수)~0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봉사진료 : 2,67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12:30 오전 진료 및 문화행사</li> <li>- 14:00~18:00 오후 진료 및 문화행사</li> </ul> </li> <li>• 문화행사(1,3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소개(비디오 상영), 영화 상영, 어린이 교육</li> <li>- 자갈란트 초중고 800명 문화행사 진행, 학용품 전달</li> </ul> </li> <li>• 구제품 전달(3,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학생, 현지직원 등 의료 등 구제품 3,500점 전달</li> </ul> </li> <li>• 리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9(토) 19:00~21:00 리셉션</li> <li>현지의료진, 도국장, 도립병원장 등 40여명 참가 화합의 시간 진행(도국장, 면장, 보건소장 수회에 걸친 감사인사 전달)</li> </ul> </li> </ul>
9.10(일)	- 귀국준비, 집포장, 자갈란트-울란바토르 이동 - 도립병원방문, 협회소개(단장), 도립병원소개(도립병원장) 도립병원 선물전달 - 수녀원 방문(구제품 및 협찬금전달), 이준하 신부 농장방문 - 수녀원 주일미사 진행

일자	프로그램
9.11(월)	- 텔레즈 국립공원 방문 - 마리안느 병원간담(이준화 신부) 현장 방문(협찬금 전달) - 교구청 진료소 방문 일부인원 진료
9.12(화)	- 07:45 울란바토르 발 11:30 인천공항 도착 - 귀환화물 협회운송 후 귀가

## ② 진료

### - 자갈란트 보건소 환경

- 울란바토르에서 140km 거리(자동차 3시간)
- 관할인구 6,200명
- 보건소 의료진 22명  
(의사 8명, 간호사 4명, 기타직원 10명)
- 의료장비: 수술기, 초음파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사용 중
- 의약품: 절대 부족
- 의료진: 의료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
- 응급환자 발생 시 울란바토르까지 장거리 이송(수시로 발생)
-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없는 한 단기간 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 진료봉사 결과

- 몽골 터브 아이막 도 자갈란트 면 주민 6,500명
- 외곽지역 50km 원거리 마을주민 보건소 방문
- 울란바토르에서 다수 인원 방문

## ③ 후속진료대상

- 후속진료대상자 : 소아과 구루병 등 4명 정도 발생
- 한국 초청 또는 현지 방문 후 후속진료 추진방안 마련이 필수 과제

〈표7〉 진료봉사 결과

구분	진료일자				합계	일평균
	9/6	9/7	9/8	9/9		
내과	92	137	141	141	511	128
소아과	120	160	186	216	682	170
외과	47	68	110	105	330	83
안과	133	138	156	128	555	138
산부인과	42	58	49	80	229	57
피부과	70	106	101	90	367	92
합계	504	667	743	760	2,674	668

## ③ 문화행사

봉사자와 주민간의 화합, 문화의 전달과 교류를 통한 이해를 목적으로 마련된 문화행사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우려를 제치고 예상을 훨씬 초월하는 주민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순수한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문화에 목말라하는 갈증을 다소나마 채워주고, 문화행사를 통해 진료과정에서 조성된 긴장고조와 불안한 분위기를 이완하고 또한 해소가 가능했다. 따라서 문화행사는 진료봉사와 함께 해외의료지원사업을 지지하는 양대 지지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표8〉 문화행사 추진내용

행사	내용
영화 상영	주민, 자갈란트 초·중·고 800명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영화, 애니메이션, 한국 소개 등)
놀이마당	유치원, 어린이 대상 놀이마당 전개(요술풍선, 퍼즐, 그림, 스티커 등)
구호품 전달	주민 및 학생 대상 학용품 등 구호품(3,500점) 전달
건강강좌	주민 대상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 실시
대화의 장	마을주민, 학생, 교사 등과 대화의 장 마련 북음전파
리셉션	정부 요인, 의료진, 유지 등 리셉션 행사 진행(의료봉사에 대한 감사 인사)

아울러 문화행사가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하고 화합과 정서교류라는 중요한 매체적 역할을 만들어 내고 있어 수준 높은 행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 ④ 의료용품/구제품 사용내역

〈표9〉 의료용품/구제품 사용내역

구분	내용						
의약품/ 의료 소모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품 : 환자 2,500명 분 진료약품(3,500만원 상당) - 구매 420만원 / 협찬접수 3,000만원 상당액</li> <li>•의료소모품 : 600만원 상당 - 구매 160만원 / 협찬접수 400만원 상당액</li> <li>•협찬업체 : 유한양행 등 28개 제약회사</li> <li>•사용내역</li> </ul>						
	구분	진료	보건소	수녀원	이준하 신부		
	구성비 (%)	90	4	3	3		
구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제품 준비내역(총 4,990점) 화장품(소형 600세트, 대형 20세트), 볼펜(종류별) 1,500개 치약 230개, 비누 440개, 삼푸 150개, 칫솔 250개, 사탕 1,600개 의류(헌옷) 200벌</li> <li>•협찬업체 - 태평양화학, 부광약품, 개인기부자 등</li> <li>•사용내역</li> </ul>						
	구분	학교	현지인	의료진	수녀원	이준하신부	기타
	구성비 (%)	30	25	10	15	15	5
문화 행사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물 내역 : 학용품/문화기구/놀이기구/체육기구 등</li> <li>•사용내역 - 유아행사/학교 문화행사/주민화합 등 사용 - 일부품목 : 수녀원/이준하 신부 전달</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찬업체</li> </ul>					
갈더마코리아		베링거인겔하임	유유산업	한국세링			
나노팜	보나에스	울전실업	한국알콘				
대웅제약	부광약품	일동제약	한국유씨비				
동아제약	비엠에스제약	종근당	한독약품				
명인제약	삼일제약	녹십자	한유				
유한양행	스티벨	중외제약	GSK				
바이엘코리아	씨제이	태평양	SK케미칼				

#### ⑤ 예산결산

〈표10〉에서 보면 총예산이 4,2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으나 28개사의 협찬규모가 약 4,000만 원 정도로 금전으로 환산하면 실제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회사들에 감사를 드린다.

〈표10〉 예산내역

순번	항목	금액(원)	구성비(%)
1	의약품	〃	11.1
2	의료소모품	〃	7.2
3	호텔숙박비	2,918,440	6.9
4	캠핑장 숙박	1,304,050	3.1
5	주방기구 구입	672,000	1.6
6	문화기구 구입	1,105,500	2.6
7	항공권	12,360,000	29.3
8	차량운행비	2,580,000	6.1
9	통역번역비	2,680,000	6.4
10	음식재료비	1,445,012	3.4
11	운송비	3,107,500	7.4
12	침구류 구입	675,000	1.6
13	유니폼 구입	660,000	1.6
14	보험료	423,470	1.0
15	식대(매식)	1,599,715	3.8
16	협찬금 지급	2,840,000	6.7
17	기타	54,700	0.1
18	합계	42,170,677	100

#### ⑥ 사업평가

이번 '2006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은 이전의 소수 전문요원에 의해 추진되던 폐쇄적 성향을 극복하고 공개와 자율을 통한 문화적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개선점을 유감없이 제시하고 있다.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사업규모

- 협회 역대 해외의료지원사업 규모 중 최대 규모
- 문화행사 지원을 겸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행사 진행
- 당초 예상 진료인원 대비 두 배가 넘는 많은 인원 진료

• 그리스도 사랑 및 복음화 실천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

– 현지반응

- 3년 전 동일지역의 Y의대 진료봉사와 비교, 당협회 사업단의 조직적인 사업진행에 주민의 감동 연출
- 문화행사 + 의료봉사 : 지역주민 축제분위기 및 초·중·고 학생 800여 명 문화행사 감동 연출
- 정부 및 독립병원 관계자에 한국가톨릭의료 확실한 이미지 전달

– 참가자

- 봉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을 체험
- 현지인 및 의료인과의 교류 및 문화체험 기회에 만족
- 현지 의료기관 및 선교단체 방문을 통한 정보교류와 자긍심 고취

– 평가

- 협회 출범 후 단원공모를 통해 처음 시도한 이번 해외 의료지원사업은 현지인 및 봉사자가 함께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업이 2007년 사업 추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높은 가치의 경험과 업적이 되리라 생각한다.

## 4. 2007년 사업계획안

봉사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2007년도 사업계획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년도 협회 사업안 수립에 참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11> 2007년 사업계획안**

구분	내역
사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를 위한 때돌이식 사업을 배제하고 실속과 맞춤형 사업 추진</li> <li>• 예산과 자원 범위에서 사업 추진</li> <li>• 2006년 사업결과의 연속성 유지, 대상지역의 현실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진적 해결에 중점</li> <li>• 대상지역의 진료센터화, 현지의료인 고용과 의료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여 의료수준 개선에 중점</li> </ul>

구분	내역
대상지역	몽골 티브 아이막 도(道) 자갈란트 면(面)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봉사 - 기존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진료사업계획 수립추진</li> <li>• 문화행사 - 한국문화 전달 및 선교활동</li> <li>• 구제품 전달</li> <li>• 의료기관 방문 -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 시도</li> <li>• 현지주민 교육 - 질병예방, 진료지도, 식생활개선, 위생관리 등 교육</li> <li>• 의료인 교육 - 현지의료인의 한국 초청, 장기적인 지원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교육채널 신설 및 프로그램 정착화 방안 검토</li> </ul> </li> <li>• 진료소화 사업 - 현지 의료인 육성을 통한 진료센터화(진료소화)</li> </ul>
단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50%+신규 50%+증원 30% = 23명</li> <li>- 증원파견 및 기존의 진료과목에 치과진료 증설 운용</li> <li>- 회원병원 각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정기적인 회원모임과 관리</li> </ul>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88,000천원 / 협찬 48,000천원 / 협회 40,000천원</li> <li>•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 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자회 행사 : 일일 찻집, 구제품 수집, 중고 의료기기 및 용품수집 등을 통한 예산확보 및 홍보효과 → 관심과 참여 유도</li> <li>- 자동차보험 사업을 활용, 회원의 동참을 유도</li> <li>- 가톨릭 의료기관과 이념과 윤리를 공조하는 기관과 연계</li> </ul> </li> <li>• 참가자도 일정액 기부하여 모범적인 봉사자의 자세 유지하고자 협의</li> </ul>

## 5. 맺음말

사랑을 베풀고, 부족한 곳을 채워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기초적인 의료수혜 조차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세계 주민들을 적극 배려하고 복음화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참가자의 깨달음과 가톨릭의료의 선양 등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는 해외의료지원사업이 명실상부 협회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탄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이윤추구가 경영목표인 기업들도 사회참여를 경영자의 사명으로 분류하고 '제3의 경영'으로까지 칭하고 있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정황이다.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협회의 해외의료지원사업이 2007년도에는 진일보한 모습이길 기대한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만큼 기관의 성장과 아울러 사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사업을 위해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